

2019년도 제1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18년 신규로 구축된 상담시스템과 기존 노후화된 가상화PC 서버의 호환성과 상담속도 저하 및 장애발생으로 상담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 : 없음
- 세출 : 기정예산 206억 3,600만원 대비 13억 9,800만원 증액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22,035	20,636	1,398	6.8%

4. 검토의견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0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3,6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13억 9,8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120다산콜재단 운영(사업설명서 12쪽)은 MS社에서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윈도우10’ 등 최신 운영체제에서 호환되도록 ① 관련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구입과,

’18년 신규로 구축된 ‘차세대 상담정보관리시스템’ 내 상담프로그램의 메모리 사용량은 증가되었으나 기존 시스템을 이관받아 운영중인 상담석 PC가상화의 메모리는 저사양으로 상담응대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상담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 ② 상담석 PC가상화 단말기 구입을 위해 총13억 9,800만원이 편성된 것임.

- 프로그램 및 라이선스 구입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시가 MS社의 ‘윈도우7’ 운영체제의 보안지원 중단(’20.1.14.부터)에 대비하여 각급기관에서 보안지원 종료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응용SW 호환성 확보 △공개SW 도입 등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책-529호,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049호, 8939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이나

국가정보원의 공문은 ’18.3.16.자에 서울시로 발송되었고, 서

울시 정보통신담당관의 '18.4.6.자 공문(붙임1)에서도 이미 “19년 정보화사업에 예산 편성할 것”을 명시하여 각 실국에 공람하였으나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은 2019회계연도 본예산이 아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120다산콜재단의 행정상담은 위탁업체로 운영시 시민소통기획관을 통해 서울시 업무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시민들에게 응대 및 제공할 수 있었으나 재단설립 후에는 서울시데이터센터의 서버를 거쳐 서울시 내부웹페이지(교통, 수도 등)에 상담사가 직접 접속하여 상담하는 방식이었음.

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0조¹⁾에 따라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20다산콜재단이 설립되면서 서울시 업무망이 차단된 데 따른 것임.

- 120다산콜재단은 2018년도 예산안 검토 당시 자체적으로 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에서 사용한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예산안 심의시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차세대 상담정보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 바 있음.

동 시스템은 상담원들이 서울시 내부웹페이지(교통, 수도 등)를 건건이 연결하기보다 하나의 페이지에 모두 생성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자체 상담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

1)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축하며 재단 일부 업무처리와 상담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고자 것임.

상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 결과 새로운 웹기술을 적용하여 메모리 사양이 크게 되었으나 기존 상담석 PC가상화는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상담프로그램 사용 중 다운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등 기존 대비 약 10%이상 상담응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PC가상화 단말기구입은 '18년 상담시스템 구축 당시 예산부족으로 서울시의 재활용 가능한 자산을 이관 받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그 중 이관받은 상담석 PC가상화가 '14년 구입으로 내구연한(서울시 기준 5년, 조달청기준 6년) 도래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임.

- 시민소통기획관은 120다산콜재단의 자체 운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원스탑 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17년도에 전산개발비로 “120다산콜재단 정보전략계획(ISP)수립”에 3억 1,75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출된 용역 결과에 따라 시스템 재구축, 내외부망 연계방안 수립, 정보보호체계 수립 등을 위해 6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당초 용역에 상담석 PC가상화는 내구연한 미도래로 구축사업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57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2018회계연도에 편성되었던 것임.

특히 서울시데이터센터의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상담은 필수적인 시스템이나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결불량, 오작동 등 장애발생시 원활한 상담이 불가하고 장애조치를 위한 시간이 과다소요(14시간 이상)되는 등 안정적 상담환경을 위해 이중화 작업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이는 2020년 본예산(11억원)에 편성할 예정임.

- 120다산콜재단은 예산부족으로 제외되었던 정보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 위원회가 재단설립 당시 우려했던 민간위탁 대비 재정적 부담이 실제적으로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면밀한 계획을 통한 예산 추계가 아니라 결국 재단 설립에 급급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업' 으로 지켜주세요!

I·SEOUL·U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MS社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 대비 이행사항 통보

1.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책-529(2018.03.16)호와 관련입니다.
2. MS社는 2020. 1. 14부터 '윈도우7' 운영체제의 보안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보안대책 수립 일환으로 각급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의 「PC 운영체제 현황 및 교체계획」(붙임)을 파악코자 하오니 4.11(수)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각급기관은 보안지원 종료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응용SW 호환성 확보 △ 공개SW 도입 등의 보안대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19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PC 운영체제 현황 및 교체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구1-25,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전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립대학교총장(전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발우사우관 서재호 정보보호팀장 서재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19 김원집

협조자 발우사우관 김세형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778 (2018.03.19.) 접수 시스템관리팀-231 (2018.04.06.)

우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형사 / 3층 2층 / 전화 2133-2881 / 전송 2133-1074 / seojh@seoul.go.kr / 비공개(2,5)